

에베소서 2장 11절 ~ 3장 10절

(2장 11절 - 22절)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2.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13.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15.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8.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21.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1. 본문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우리도 이런 이방인이었는지 않았는가?

- 우리에게 이방인은:

2.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까?

(1)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구약의 하나님 =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신약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9. 곧 하

나눔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3. 그리스도는 사람들 간에도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간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1) (13절)

(2) (15, 19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크리스찬들은 서로 형제, 자매이다..

(3) (17절)

(4) (18절)

(5) (20-22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무십니다.

4.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1)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2)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돌들이 되었다.

(3)

(4)

*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3장 1절 - 13절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1.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갠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

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6.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

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10.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11.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구절 해설]

(3장 4절) 비밀: 이 비밀은 secret이 아니라 mystery입니다. 밝혀지면 시시한 것이 secret 이라면 밝혀져도 신비한 것이 mystery이지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신비한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장 8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1. 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과 4장 1절의 비교)

(2-5절, 9절)

2.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감격스러울까요?

(1)

(이사야 49장 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2)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

- 함께 상속자가 된다: 미래적인 축복 - 함께 지체가 된다: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된다: 현재적인 축복

-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해 질까? God-sized work

3.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교회의 사명, 존재 이유). 누구에게 알려신다고 하십니까? 지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 한 사람은 약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강하다!**

4. 이로 보건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2)

(3)

5.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당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소명적인 선택입니다:

- 유대인들인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8절)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13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3장 14절 - 21절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14.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15.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20.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6.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 성령을 통하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도록

(고후 4:16)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2)

(요한1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3)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도록

(4)

7. (18절)에 묘사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8. 교회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바울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